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전국 평균 상회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우제류 2237두 표본검사 결과 소 98.3% · 돼지 95% · 염소 98% 등 높은 수치

전북도에서 사육하는 소와 돼지, 염소의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10월 하반기 구제역 일제 접종의 항체 양성률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검사 결과, 전국 최고 수준의 항체 양성률 결과를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구제역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는 도내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51만 두의 백신 일제 접종이 마무리되면서 면역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동물위생시험소는 하반기 모니터링 검사(표본검사)를 위해 우제류 농가 315호(소 224호, 돼지 59호, 염소 32호) 2,237두를 표본으로 선정해 11월부터 12월 첫째 주까지 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하반기 모니터링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은 소 98.3%, 돼지 95%, 염소 98% 등 높고 안정된 수치를 나타냈다.

이 결과 값은 전국 평균(올해 10월 누계기준)인 소 97.2%, 돼지 87.6%, 염소 81.9%를 상회하는 수치다.

아울러, 이번 검사 결과에서는 백신 항체 양성률 기준인 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30%, 염소 60%에 미달하는 도내 농가도 없었다.

백신 항체 양성률이 미달인 농가는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도는 우제류에 대한 항체 양성률을 높이기 위해 양성률이 저조한 농장에 대한 강도 높은 방역 대책과 농장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재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구제역을 선제적으로 방어 한다는 각오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철저한 예방접종과 차단 방역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유호상기자

전북도-와이에이치에너지 '맞손'

새만금산단에 재생에너지 설비 제조공장 건립 투자협약

전북도는 8일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와이에이치에너지㈜와 새만금산단에 재생에너지 설비 제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김우상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고기헌 와이에이치에너지㈜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와이에이치에너지㈜는 2012년 설립한 태양광 발전설비와 관련해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설비 제작·시공 강소기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와이에이치에너지(주)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2공구) 내 4만㎡ 용지에 163억원을 투자,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소형 풍력발전기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작하는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와이에이치에너지㈜는 인버터일체형 태양광 모듈과 낮은 풍속에서도 효율이 높고 회전 소음이 적은 소형 풍력발전 설비 등 신제품의 특허출원 및 개발을 완료하고, 저렴한 임대료의 장기임대 용지제공과 물류의 편리성 등 투자여건이 우수한 새만금산단에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산단에 입주를 완료하면 19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서 새만금의 경쟁력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전북도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업유치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와이에이치에너지㈜가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과 투자 확대를 통해 새만금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내년도 정보화사업 온라인 설명회 오늘 개최

전북도가 9일 오후 2시 유튜브를 통해 내년도 '정보화사업 온라인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전북도 정보화사업 설명회'는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과 전북테크노파크 등 전북도와 도내 공공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 참여하는 혁신도시 이전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한국국토정보공사, 전기안전공사,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이다.

설명회는 전북도와 도내 공공기관에서 주관하고 발주하는 2021년 정보화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예정이며, 15개 공공기관의 연합설명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2021년도에 추진할 159개의 정보화사업에는 사업비만 843억원에 이른다.

이를 통해 전북도는 도내 우수 ICT 기업들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도내 ICT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도내 ICT업체간 상생의 길을 열어 도내 ICT 관련 우수 일자리가 창출되길 기대하고 있다.

박현숙 전북도 정보화총괄과장은 "SK의 새만금투자 약속과 전북 경제구조가 첨단기술산업 위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정보화사업 설명회를 통해 기관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기업을, 기업은 성장할 수 있는 일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BIG3 기업 성과공유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기업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시스템반도체 기업들에게 포상과 현판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신속·정확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로 먹거리 안전 확보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230항목 안전성 검사… 내년 상반기 전주에 '농산물현장검사소' 개소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이 도내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채소류와 과일류 등 총 727건의 농산물에서 제초제, 살충제 등을 포함해 잔류농약 230항목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건의 농산물에서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돼 해당 시·군에 즉시 통보, 회수·폐기 및 행정조치 등으로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게 했다.

그 외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내로 검출돼 안전한 농산물인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는 내년 상반기에 전주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에 '농산물현장검사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최신 분석장비를 활용해 경매전이나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의 신속하고 정확한 잔류농약 검사로 부적합 농산물의 사전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도내에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시·군 식품위생 담당부서와 협력해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산물도매시장 등에서 공동 수거해 검사를 진행한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위해 앞으로도 잔류농약 검사를 더욱더 강화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개선

전북도, 전국 최초 주파수 혼·간섭 문제 해소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무선 마을방송시스템의 주파수 혼·간섭 문제를 해결해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갖추게 됐다.

도는 재난발생시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민방위경보와 재난방송을 동시에 전파할 경우 주파수 혼·간섭으로 발생하는 수신 불량 문제를 찾아내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무선 마을방송시스템은 시·군의 읍·면·동(마을)에서 공지사항 및 재난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구축·운영하고 있는 간이 무선국이다.

이를 통해 주택 방음효과 증대와 우천시 확성기 방송의 문제점을 무선으로 해결하고, 집안에서 방송 내용을 정확하게 청취해 산불,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시 각 가정의 비상호출 기능을 부가적으로 추가, 신속한 선 조치로 사전 피해예방 및 최소화를 도모한다.

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마을방송 무선국용으로 허가된 무선통신 주파수가 아날로그 5개, 디지털 10개 등 총 15개 주파수만을 가지고 운용하다 보니 인접한 마을방송시스템간 전파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손잡고 마을방송 간이무선국간 전파 혼·간섭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도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도내 1,301개 마을방송용 주파수, 설치장소, 전파 도달거리 등 마을방송 현황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전파 혼·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5개 시·군 24개 마을방송 무선국을 찾아냈다.

도는 이를 토대로 전파 혼·간섭이 발생하는 해당 시·군 지역에 대해 적정주파수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또, 향후 마을방송 간이무선국을 설치할 경우에 기획·설계단계부터 인접한 마을간 전파 혼·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경보통제체계 구축과 민방위경보 가청률 향상 등 마을방송을 활용해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에 전파간섭 문제를 바로 잡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유호상기자

모집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환영

스피치·긴장해소·웃음치료(힐링)·면접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김양옥 교수)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검정위원장
○ 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 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전주, 임실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 〈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군산, 부안, 서천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치료 등) 〈주, 야간〉	정읍, 고창
익산스피치(원광보건대)	스피치&웃음치료(야, 주간반)(웃음자격증)	익산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치료(야)(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치료(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야)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